

시온 주보

제2588호
2025년 12월 7일(가해)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광야의 세례자 요한
헤르트헨 토트 신티 안스
(Geertgen tot Sint Jans, 1460-1495)
1480년대, 오크 나무에 유채
41.5x27.9cm
베를린 국립 회화관, 독일 베를린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이사 11,1-10

화답송 | 시편 72(71),1-2.7-8.12-13.17(◎ 7ㄴ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 로마 15,4-9

복음화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마태 3,1-12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조영식 사도요한 신부 | 제기동성당 주임

회개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1)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은 전합니다.(3,5-6 참조)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3,7)

왜 그랬을까요?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에게서 변화의 의지를 발견하지 못해서인지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3,8)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율법과 같이 어떤 형식적이고 외적인 예식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세례 역시 참다운 회개가 동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회개의 일차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 회개로는 사실 근본적

인 변화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돌려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즉,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느님 중심적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쁘게 맞아들이고, 참된 하느님 나라를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회개의 삶을 허락하시고 초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힘든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나요? 우리 인간을 옥죄는 주님의 강압이나 경고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참된 행복을 전해주려는 주님 사랑의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합리화로 이용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성화 해설

수도복 같은 갈색 낙타털 옷과 믿음을 의미하는 푸른 겹옷을 입고, 고행을 드러내는 맨발을 한 요한은 예언자가 아니라 마치 은수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고요히 턱을 괴고 고심합니다. 요한 결의 빛나는 어린양과 오른편의 영경귀, 발치에 피어난 매발톱꽃은 주님의 수난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인간의 죄에 대한 성찰 속에 잠겨있지만, 곧 일어나 회개를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하느님, 정말로 계십니까!



양주호 베드로 | 배우

저의 어린 시절은 성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성당에서 보냈습니다. 성당에 가면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들이 있었고, 먹을 것도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느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존재하신다면 어떤 분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받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외면당하는 것 같은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생각은 꼬리를 물며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정말 공평하신 한 분이실까?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기아 속에 태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뉴스에서 보는 가슴 아픈 사연들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또한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느님께서 단 한 번만 나타나 주셔도 그들이 두려워하며 악행을 멈추거나 줄일 텐데, 왜 방치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며 결국 하느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의심은 더욱 커져, 제가 무신론 서적인 《만들어진 신》을 읽었을 때, 기어코 제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책은 신과 종교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논리와 증거가 너무 치밀해 반박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 화가 나 본당 신부님과 학사님을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인간적인 사고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거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제가 원치 않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저는 사회생활을 시

작했고, 인생의 여러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허망함을 느끼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하느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하느님께 속아 세월을 허비했다는 자책과 허탈함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정이 있어 하느님과 결별 인사(?)도 나눌 겸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나오는데 청년성서모임(성경 공부) 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크게 일렁이며 머리와 몸이 마비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하느님에 대해 고민하고 의심하며 답을 찾으려 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저에게 마지막 히든카드를 건네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떠나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느님과의 새로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나 분쟁 지역, 특히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박미정 노엘라 | 작가

장애아동들에게 안전한 집이 필요해요



‘라파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눈이 불편한 열네 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피아노 쳐 드릴게요.” 소년의 웃음은 아직 단풍 들지 않은 초록 잎처럼 청량하였고, 쇼팽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

아노 소리가 소년의 눈동자가 되어 사방으로 잔물쳤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건 ‘선행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멈춘 자리, 사회가 포기한 책임의 그림자였습니다. 열두 명의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사회적 정의의 증거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취약 계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쩌면 공백을 가리기 위한 행정의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보호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보호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넓고 누추한 시설 속에서 자문했습니다. ‘어디까지를 사회라 부를 수 있을까?’ 복층 구조의 좁은 계단은 휠체어를 탄 아이들에게 한 걸음의 오르막이 절벽이고, 한 층의 높이가 하늘만큼 멀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의 집’은 엘리베이터 한 대를 꿈꿉니다. 그건 편의가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껏 오르내릴 수 있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자기 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방 하나’의 여유가 없습니다. 방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를 허락하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생긴다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세상에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오며 두 손으로 눈부신 가을 햇살을 한 움큼 쥐어 보고 찢었습니다. 손을 빠져나간 햇살이 장마철 소나기에 젖어 곰팡이가 핀 천장과 습한 이불, 손을 잡고 방바닥을 기는 아이들의 얼굴 위에도 따뜻하게 머물길 바랐습니다. 이곳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사람답게 치유하려 애쓰는 마지막 자리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라파엘의 집’은 버터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 한 칸, 엘리베이터 한 대,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손길로 이어질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위의 글은 채광석 시인께서 ‘라파엘의 집’ 아이들을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경북궁 인근에 자리한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시각장애 인선교회에서 1986년 설립한 중증·중복 장애아동·청소년 생활 시설입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이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잦은 정전과 빗물 누수,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등으로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365일 돌봄이 필요한 12명의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스스로 생활이 어렵고, 안전한 환경이 절실합니다. 지금 재건축만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낼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축복의 대림 시기를 맞아,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산타가 되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12월 6일~2026년 1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라파엘의집’을 위해 쓰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6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바보의나눔
기부금 영수증

그리스도인의 소유 (신학적 인간학)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우리 마음 안에는 저마다 쉽게 놓지 못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 관계, 인정, 성공 등 형태는 달라도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소유는 잠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도 안겨 줍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1976)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소유의 역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깊은 신앙적 의미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 5,3-8 참조) 이 말씀은 비움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신앙의 태도임을 보여 줍니다. 마음의 가난과 물질적 가난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소유가 적을수록 더 쉽게 하느님께 향할 수 있고, 은총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 신학자 앙리 드 루박(1896-1991)은 이 점을 더 깊이 밝혀줍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심어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열림이 존재합

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잊은 채 다른 욕망으로 마음을 채우다 보면, 하느님을 향한 그 고유한 갈망은 점점 흐려지고 말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행복을 위해 비움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인간의 의지나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금욕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스스로를 비우시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 은총이 머무를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소유욕은 자연스레 누그러지고 하느님을 향한 본래의 갈망은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의 여정은 비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움을 통해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풍요는 ‘무엇을 버리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비움은 충만으로, 가난은 자유로 변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덜 가지기 위한 절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본래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자를 보내주시는 하느님



안제영 오딜로 |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저는 목4동성당에서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성당에 다닌 지는 이제 햇수로 7년째입니다.

2022년 9월, 주보에서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모집 공지를 읽고 호기심이 생겨 신청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려면 교재가 필요한데, 대부분 종이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의 준비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인쇄된 글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교재를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중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려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있다면, 이 제작된 파일을 활용해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복음까지 총 세 단계의 그룹 모임을 마쳤습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연수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성서모임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것들이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연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의 요청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대부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연수 내내 함께 해주신 소중한 손길이 많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덕분에 어려움 없이 연수를 마쳤고,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도 신부

님의 추천으로 창세기와 탈출기 연수의 마지막 미사에서 대표 연수생으로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탈출기 연수를 수료한 후 발표했던 소감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에서 ‘협력자를 보내주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곤 합니다. 저는 평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번 연수도 소중한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협력자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언제나 제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은 물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협력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실지 기대됩니다.”

저의 곁에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네 번째 과정인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여유가 없어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성서모임은 제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기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서모임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12

사학 매파 간지대 정복혜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궁녀들과 목주신공을 바치고 있는 김연이 올리아를 그린 그림.
(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신유박해 당시 이른바 사학매파(邪學媒婆)로 활동이 두드러졌던 사람은 간지대 정복혜와 올리아나 김연이, 그리고 레지나 복점 세 사람입니다. 앞의 둘은 순교했고, 사노비였던 복점은 배교해서 유배 갔지요.

사학매파란 당시 교리 교사의 역할을 맡았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정복혜는 오라비 정명복 내외와 아들 윤석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합규를 통해 세례를 받았던 서소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곳에 교리 교육을 다니면서 교리서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교우의 교리 교육은 정광수가, 여자 교우는 정복혜가 맡아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애의 집에서 압수된 수많은 교리 서적은 그녀가 맡겨둔 물건이었습니다. 그 압수 품목 중에는 도상판(圖像板)과 그림 족자 3개가 있었고, 작은 주머니 6개에는 순교 성인의 머리카락과 나뭇조각 및 성해와 관련된 가루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례명인 《성녀 간지대》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교회 내 그녀의 위상이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1811년 중국 북경 주교와 교황님께 보낸 〈신미년백서〉에는 그녀의 세례명이 ‘감제대(甘弟大)’로 나옵니다. 감제대는 당시 중국에서 성녀 칸다다를 가리키는 표기입니다. 조선에서는 간지대로 불렀지만, 중국에 보고할 때는 그들의 표기법에 따라 감제대로 정확하게 표기했던 것이지요.

김계완 시몬도 우리 쪽 기록에는 ‘심원(深遠)’으로 그럴싸하게 바꿔 적었지만 〈신미년백서〉에는 정확하게 ‘김서만(金西滿)’으로 시몬이란 세례명에 맞는 표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야만 중국 사람들이 그의 세례명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복혜는 강단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공초 기록은 비중에 비해 뜻밖에 단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합규에게서 사학을 배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구차하게 구는 법 없이 배교를 거부한 채 이합규와 함께 1801년 4월 2일에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학매파로 활동했던 비녀(婢女) 레지나 복점(福占)의 공초는 여러 진술 중 가장 길고, 거론되는 인물도 구체적이면서 다채로웠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낮아 성씨도 없습니다. 그녀의 자백으로 인해 남대문의 과부 모임과 강원숙 집안의 내부 사정 및 전동 양제궁의 송마리아, 그리고 황사영 등 교회 주요 인물들의 동선도 낱알이 드러났습니다.

포교에 진심이었던 그녀들의 엇갈린 마지막 행보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의 간지대 역할로 허리를 떠받쳤던 정복혜의 담담하지만 당당한 진술과, 열심했지만 교회의 조직을 낱알이 증언하여 제 목숨을 구걸한 복점의 대답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오늘(12월 7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4회 '인권 주일'이며 제15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7일~13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인간 존엄성을 기억하며,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 교회 메시지 항목에서 담화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4일(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신청 기간: 11월 24일~12월 12일까지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2월 8일 박정렬 바오로 신부(51세)
- 1947년 12월 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68년 12월 8일 임종구 바오로 신부(58세)
- 1972년 12월 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희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 2002년 12월 8일 김정남 안드레아 신부(46세)

교구청 알림

1492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 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정주 본당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어서와 어른은 처음이지? 이른 어른이 '사랑하 개론'
대상: 사랑이 알고싶은 19세(고3)~24세
때: 12월 27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곳: 생명위원회 5층 / 문의: 02)727-2353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신소연 개인전: 1전시실
이종석 개인전: 2전시실
김나현 · 이경자 2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 12일(금)~21일(주일)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곳: 2026년 1월 3일(토) 11시~15시, 주교좌 명동 대성당 / 회비: 2만원(12월 26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슬픔 속 희망찾기' 12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2월 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 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접수: 12월 29일(월)~31일(수) 인터넷 접수
문의: 02)740-9704, 9705(<https://songsin.catholic.ac.kr>)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파트: 베이스, 하이바리톤 0명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금~주일 및 공휴일에 있는 혼인미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성악전공 4학기 이상 수강한 만 29세 미만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세부사항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단체모집 게시판 참고

2027 서울 WYD 행사안내

- 1)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2월 20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문의: 02)2230-2023
- 2) WYD 수퍼클래스
때, 곳: 2026년 1월 10일(토) 16시~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 주제: 의미있는 삶의 완성
강사: 노유자 수녀 / 문의: 02)2230-2022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조 / 2027 서울 WYD 조직위

하루일정 전국순례 접수 안내

때: 12월 20일(토), 12월 21일(주일), 12월 23일(화)
곳: 수원 성지(수원 화성, 복수동 성당), 손골 성지
신청: 12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s.or.kr) 선착순 접수 / 문의: 02)269-0413
회비: 1인 6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환경사목위원회

- 1) 제81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 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 2) 2026년 노틀담 생태영성 피정
대상: 하늘땅물빛 회원 각 35~40명 / 문의: 032)937-7821
때: 3월 14일~15일 · 5월 16일~17일 · 9월 19일~20일 · 10월 24일~25일, 노틀담생태 영성의 집(강화)
- 3) 2026년 청소년 여름 생태영성 프로그램
때, 곳: 7월 20일~22일 · 7월 24일~26일 · 7월 29일~31일 · 8월 15일~17일 · 8월 19일~21일 · 8월 23일~25일 · 8월 27일~29일, 노틀담 생태 영성의 집(강화)
대상: 초중고 주일학교 본당별 / 선착순
문의: 032)937-7821

20단 목주기도와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성모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6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산티아고 화요산피정	매주(화) / 안국역 - 외봉공원 - 북악팔각정 - 창의문 - 경복궁역(10km)

인준단체 알림

모임

가톨릭영화인협회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때: 2026년 4월 10일(금)~22일(수) / 문의: 02)778-8565

청년 대림 피정(성심수녀회)

때, 곳: 12월 20일(토) 10시~17시, 성심수녀회 본원 (원효로) / 문의(접수): 010-9385-5814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대림 피정

기다림과 나의 십자가 / 문의: 02)726-0700
 때: 12월 18일(목) 10시~17시 / www.jiscen.or.kr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초대식 신부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말씀·안수

대림·성탄 묵상 피정

주제: 기다림 /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회)
 때, 곳: 12월 15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프란치스코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 문의: 010-8858-7814
 때: 매일 세번(금~주일) 2박3일 / 회비: 25만원
 곳: 폰텐푸알 프란치스코회(주최) 양평 수도원

글라렙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 14일(주일) 11시~15시, 글라렙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봉헌식·갱신식 미사

때, 곳: 12월 8일(월) 9시~12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타마의 세계 사도직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강사: 박효철 신부(청주 성령해신 지도)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 / 점심 무료 제공
 때, 곳: 12월 17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 9일 배갑진 신부 12월 16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수도원(화순) / 문의: 061)373-3001
 제143차 12월 26일(금)~2026년 1월 3일(토)
 제144차 2월 13일(금)~21일(토)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6년 1월 14일(수)~23일(금)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월 30일~2월 1일, 2월 28일~3월 1일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미사) / 문의: 031)952-6324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미사 2026년 1월 3일(토)
 매월 13일 피정·미사 12월 13일(토)
 매주 목요일 기도·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한마음 사계 피정 1월(대침묵 피정)

주제: 주님의 기도 / 회비: 1인 20만원(1인 1실)
 때: 2026년 1월 23일(금) 16시~25일(주일) 13시
 곳: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 강사: 정남진 신부
 문의: 031)850-1449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영혼의 밥은 성령이요 성우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토) 12월 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 19일(금)~22일(월) 2026년 1월 16일(금)~19일(월) 2월 13일(금)~16일(월) 2월 20일(금)~23일(월), 성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분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제주 산돌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순례 피정 2026년 1월 9일~11일·1월 23일~25일·2월 6일~8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동) 12월 31일~1월 3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월 15일~18일·1월 30일~2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연중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자연순례 12월 19일~21일, 2026년 1월 10일~12일, 1월 16일~18일, 1월 22일~24일, 1월 26일~28일, 2월 1일~3일, 2월 7일~9일, 2월 20일~22일, 2월 26일~28일, 3월 1일~4일(추자도), 3월 7일~9일, 3월 12일~14일(추자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010-3340-0201

부부 힐링 피정	12월 19일(금)~21일(주일)
성경 원독	2026년 1월 8일(목)~16일(금), 2월 4일(수)~12일(목)
카타리나의 집(개인·자녀취사)	문의: 010-9715-1203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2026년 3월 1일~2일, 5월 22일~23일
스페인 산티아고	4월 11일~5월 2일
홍성남 신부와 남규슈	4월 6일~10일
제주 성지순례	3월 4일~7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 20일(토)~21일(주일)
3박4일	12월 11일~14일, 2026년 2월 7일~10일
4박5일	1월 7일(수)~11일(주일)
8박9일	12월 26일(금)~1월 3일(토), 1월 7일(수)~15일(금)
40일	12월 17일(수)~1월 25일(주일)

청년생활 피정

접수: 다음카페 '둘째생활피정'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12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송구 영신 철야기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 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1) 12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강사: 김성기 신부(예수회 호주관구)
 때: 12월 13일(토) 12시~17시30분
 2) 삼성산 송구영신 철야기도회
 때: 12월 31일(수) 오후 6시~2026년 1월 1일 오전 4시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고상·성모상·묵주 만들기(가톨릭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영어 ABC반, 기초영어반 / 문의: 02)727-2471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4길 14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 문의: 02)747-8501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026년 1월 16일(금)까지 / ci.catholic.or.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주4일)	자력증 수여(2년 과정)
신학심화과정	19시~21시 40분(주3일)	본원출업생(교리·종교·통신과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1년 과정)

제27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3주)	2026년 1월 12일~2월 1일 / UCLA·UC버클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탐방
사이판 (4주)	2026년 1월 10일~2월 4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026년 1월 개강 / 문의(접수): 02)3276-7733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 center.jesuit.kr

(월)	월요무료 피정·공동식별	이근상 신부
(월)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진현 신부
(월)	비블리오 드라마·성경드라마 (현장만 가능, 8주)	김영근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지혜문학	주원준 박사

새천년복음화학교 153기 1단계 개강

때, 곳: 2026년 1월 14일(수) 14시, 가톨릭회관 527호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경 속 인물과의 만남

때: 2026년 1월 21일(수) 15시~22일(목) 13시
곳: 왜관 수도원 문화여성센터(주최) / 회비: 12만원
계좌: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010-6791-0071 (문자)

지혜의 샘 겨울특강 캠프 / 문의: 010-3248-9705

내용: 성경 본문 속 회답에 기초문법 8주 과정
강의: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 회비: 3만원
때, 곳: 12월 22일~2026년 2월 9일 (월) 19시~21시,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곳: 2026년 1월 7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시30분(6주), 한국CLC 강의실
문의: 02)2135-9398 한국CLC / 1월 2일까지 접수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임(가톨릭성서모임)

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판관기·룻기, 사무엘기(상), 코린토
때, 곳: (월·화·수·주일) 오후 8시, 비대면
문의: 02)824-4363 / 홈페이지(www.biblemove.com) 접수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6년 2월 20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or.kr)

모집

국악성이 한길합창단 정기 오디션

때: 2026년 1월 30일(금) 18시30분
오디션: 가톨릭성가 중 1곡 / 문의: 010-8932-0910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 미사

때: 둘째주(토) 12월 13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7142-051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 12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곳: 12월 22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집전: 염수정 주기경, 송영호 신부

안내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명동대성당 성음악봉사분과 연합연주회

명동성당 성음악봉사분과 소속 합창단 연합 연주회
때: 12월 8일(월) 20시 / 문의: 02)774-1784
곳: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 전석 초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라비우스수녀회)

코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5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12월 20일~2026년 1월 17일·21일 15시45분~18시(주일 미사),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학)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재)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인사·총무, 재무, 기획(정책), 기부후원, 보조사업, 통번역, 순례자부기회, 행사기획, 행사관리, 봉사자 관리교육 / 채용시까지 상시 모집
서류: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다운로드
이메일(recruit@wydseoul.org) 문의·접수

신정3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문의: 02)2060-805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 업무: 미화·시설관리·조경·방호 등 업무(운전면허 1종보통)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2월 21일까지 이메일(sinjeong3dong@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순교자현양위원회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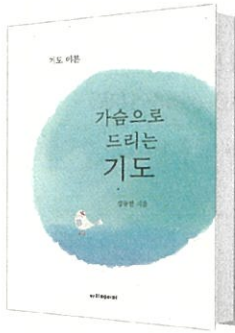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영어능통자 우대
업무: 순례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기획, 간행물 제작, 후원회 업무 등 / 인원: 계약직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12월 21일(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단 주방근무자 모집

곳: 강동구, 영등포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12월 21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월 20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예수수도회	수시(전화 상담)	서울, 대전	010-4784-1964
예수회	12월 20일(토) 15시	관구본부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동)	010-4627-0295 손 카타리나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	010-8867-3217
전교가르멜수녀회	12월 27일(토) 14시	본원(통의동,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010-7523-0956(@carmelitas197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기도 이론: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정규한 지음
마리페이퍼 | 215쪽 | 2만원
문의: 010-3845-3045

이 책은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전통을 바탕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도의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돕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기도 초보자뿐 아니라 기도를 지도하는 이들에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된다.



신간

품격 있는 황혼

브라이언 그로간 지음
바오로딸 | 324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나이 들은 쇠퇴가 아닌 영혼의 꽃이 피어나는 시간이다. 저자의 따뜻한 체험과 성찰로 쓰인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노년을 영적 성숙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나이 들고 죽음, 그 너머 영광까지 묵상하며 삶의 황혼을 품격 있게 맞이하도록 기도와 위로로 이끈다.



콘서트

2025년 직장인밴드 연말 콘서트

때, 곳: 12월 12일(금) 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 다리소극장
문의: 02)338-7832 / 전석 초대

“한 해의 끝, 나와 닮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나도 누군가의 노래가 되는 시간.” 이번 콘서트는 직장인 밴드와 관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한 감정 회복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연극

WYD 연극 공연

: 네 번째 동방박사
: 친구가 되어 줄래요

네번째 동방박사: 12월 24일 16시 · 19시
친구가 되어 줄래요: 12월 25일 16시 · 19시
곳: 패밀리아채플(명동) / 전석 무료
문의: 02)3789-7702 / 당일 선착순 접수

성탄대축일을 맞은 24·25일에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아르타반이 여정 속에서 만난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친구가 되어 줄래요>는 남수단에서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삶을 조명한다. 문화 속에서 신앙의 실천과 청년들의 용기를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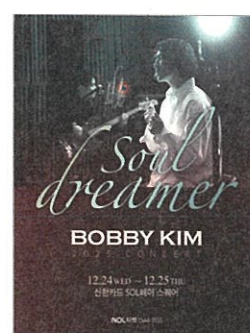


콘서트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감사콘서트

때: 12월 11일(목) 13시30분
곳: 패밀리아채플(명동)
문의: 010-5074-6842
전석 초대 / 큐알(QR) 스캔 후 신청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 음악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력인정 대안학교이다.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교한 지 6년이 되는 2026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번 콘서트는 그간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콘서트로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노비따스 윈드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콘서트

2025 바비킴 콘서트

때, 곳: 12월 24일(수) 19시 · 12월 25일(목) 16시, 신한카드 SOL페이 스퀘어
입장권: 전석 14만3천원
문의(예매): 02)512-9496 타임커뮤니케이션
큐알(QR)코드 접속 후 '인증번호 (HAPPYXMAS)' 입력(20% 할인)

가수 바비킴이 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12월 24일·25일 서울 신한카드 SOL페이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신보 <PART OF ME> 발매 이후 팬들과 함께하는 연말 무대로 마련되었다. 감성적인 히트곡과 깊은 보컬이 어우러질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으로, 로맨틱한 연말을 선물할 예정이다.



제2사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 월요일 : 06시 · 화요일~수요일 : 06시, 10시, 19시 · 목요일~금요일 : 06시, 10시 · 토요일 : 10시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최원영 스테파노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일시 : 12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국수잔치가 있습니다.
- ※ 개별 축하하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신부님 휴가

- 기간 : 12월 9일(화) ~ 12월 12일(금)
- ※ 은총의 시간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24 (수)	· 오전 6시, 10시 (평일미사) · 오후 8시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오후 8시 미사 후 음식 나눔 잔치
12/25 (목)	· 오전 9시, 10시30분, 11시 · 오후 6시

● 성탄 집중 판공성사

- 일시 : 12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전 및 임시고해실
- ※ 성사표는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대림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성탄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2월 16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통합 성탄제

- 초등부·중고등부·반대 주일학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성탄제에 초대합니다.
-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성탄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지하식당, 교육관

● 전입 교우(11월~12월) 환영식

- 일시 : 12월 28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연성회(70대) 모임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12월 14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남성울트레야

- 일시 : 12월 21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트레야

- 일시 : 12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2026년도 달력 배부

- 배부 장소 : 교육관 1층 로비
- 배부 수량/방법 : 세대별 1부씩 / 자율 수령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2022년 12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를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하실 경우 발급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1. 3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1	779 (38.7%)	736 (36.6%)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영회 감사헌금

故 이후직 하상바로로 일백만원

● 감사헌금 (11월 24일 ~ 11월 30일)

문정순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박옥남	오만원	이종주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은순	오만원
김은희	이십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십자가 성 요한 가르멜제속회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대림 제1주일)

교 무 금	14,495,000원
주일헌금	5,300,500원
성탄 위문금 2차헌금	1,794,200원

입당	97	봉헌	216,217,220	성체	156,157,158	파견	92
----	----	----	-------------	----	-------------	----	----



주 님 이 시 대 에 , 성 의 와 평 화 가 꽃 피 게 하 소 서